

##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행복 발달궤적과 시점별 예측효과 검증

장 희 선<sup>1)</sup>

### 요 약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복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잠재계층을 도출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 예측요인을 시점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2학년 학생(1차)부터 4차시점까지 4년 동안 연속적으로 응답한 8,364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상관관계, 성장혼합모형(GMM) 분석을 하였으며, 3차시점부터 대학생 5,011명(3차), 4,573명(4차)을 대상으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행복 발달궤적은 '행복 저수준 저감집단', '행복 고수준 감소집단', '행복 고수준 저감집단', '행복 저수준 상승집단' 등 4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예측요인 검증결과, 자아효능감, 부모대화,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고2, 고3)이 높을수록 '행복 고수준 저감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고민(고2)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었다. 셋째, 대학생활 영역에서 학교자부심 같은 학교만족도, 교육과정, 상담만족도는 긍정적 발달궤적으로 속할 확률을 높이지만, 비교과프로그램은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특히 상담만족도는 저수준 학생의 행복을 상승시키는 발달궤체에 속하는 요인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의 성장에 따른 행복의 발달궤적의 특성과 예측요인을 검증하고, 시점별 개인, 가정, 학교 요인의 종단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KEEP, 행복 발달궤적, 성장혼합모형, 고등학생, 예측효과

## I. 서론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세계행복보고서(2021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 비교 순위는 47위(2015년)에서 58위(2016년)로 내려온 후 50위권에 서 2020년 61위, 2021년 62위(행복지수 5.845)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The World Happiness Report 2021).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 청소년은 60.3점으로 가장 낮은 행복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염유식, 2019).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은 다른 학년 집단보다 사회 비교 경향이 가장 높고 행복에 있어서 외적 조건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한, 박은하, 2010).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학입시를 목전에 앞둔 경쟁 지향적 환경에서 성장함에 따라 외적 조건에 의해 동기화되고, 공부에 대한 즐거움, 기쁨 같은 내적 조건에 의해 동기화되지

1) 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못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기의 행복은 청소년의 바람직한 발달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진숙, 김은주 2013). 따라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고등학교 시기의 행복은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적 변화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복은 관점이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연구 분야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행복감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부딪치는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적 경험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2).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행복을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하여 측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발달단계에 따라 심리적 상태나 행복 수준에 대한 지각이 차이(권재기, 양명희 2014; 박영신 외 2012)가 있으며, 학교급별로 행복에 차이가 있었다(최유선, 손은령 2015; 한혜림, 이지민 2018). 청소년의 행복은 하나로 정의 내리기 어렵고 발달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기 받기 때문에 대상의 특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정의인 삶의 만족도의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이들의 행복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행복과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횡단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성장에 따른 시간적 흐름에 따른 행복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행복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고등학생의 행복이 가장 낮게 나타났(서민경, 조현경, 김재철, 2021; 염유식, 2019; 허유성, 최지영, 남창우, 2011; Uusitalo-Malmivaara, 2014). 중학교 3학년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의 행복이 높은 결과도 있기도 하고, 청소년의 행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도 나타나기도 하였다(이강진, 임정기, 2020). 이러한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행복은 시간에 따라 어떠한 발달궤적을 보이는 지 재확인할 필요가 제기된다. 한편, 행복의 여러 변수들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하기도 하였다.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행복감은 ‘건강형’, ‘무기력형’, ‘문제행동형’, ‘평균형’의 4개의 프로파일로 분류되었다(권재기, 양명희, 2014). 행복의 복합적 영향을 확인하고 시간의 변화도 고려한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유형화한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행복 변화궤적은 ‘저수준 점진적 하락형’, ‘중수준 점진적 하락형’, ‘고수준 유지형’으로 모두 감소하는 3개의 잠재계층으로 유형화(서민경 외, 2021) 하여 보다 복합적인 행복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초기에 행복과 관련된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최근에는 행복의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선행연구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개인, 가정, 사회적 요인의 다양한 영향을 밝히고 있다(김종백, 김태은 2008; 김청송, 2009; 서민경, 조현경, 김재철, 2021; 황환, 김영환, 2017; 차성현, 2014; Ayyash-Abdo & Alamuddin, 2007; Ben-Zur 2003; Suldo, Thalji, & Ferron 2011).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자아효능감(김청송, 2009), 자아존중감(이윤주, 2011)을 고려하였고, 가정요인으로 부모와 의사소통(서민경 외, 2021), 가족과 친밀한 관계(구재선, 김의철, 2006; 이수연, 2010; Veenhoven, 1994; Argyle, 2002) 등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학교수준에서는 학교환경과 교육과정(차선현, 김진미, 2014), 대학생활 운영방안과 고등 교육서비스(이한녕, 하정, 이희정, 2019) 등의 영향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행복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중심으로 살펴보았으므로 개인의 변화양상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행복의 발달패턴에 따른 개인, 가정, 학교요인의 종단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1차)부터 4차 시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차를 반영한 행복의 발달궤적을 분류하고, 이러한 변화궤적 집단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고민, 자아효능감), 가정요인(부모대화,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요인(학교생활만족도, 대학생활 영역별 만족도)의 예측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고등학교 2학년에서 4차 시점까지 행복의 종단적 발달궤적의 특성을 밝히고,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확인하여 행복을 높이기 위한 개인, 가정, 학교차원에서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등학교 2학년에서 4년 동안 행복의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고등학교 2학년에서 4년 동안 행복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에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별 개인, 가정, 학교요인의 예측효과는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검토

### 1. 행복

행복의 정의는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정의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구교준 등, 2015)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자기실현적 관점과 감각적 관점으로 존재한다(Ryan & Deci, 2001). 최근 심리학에서 행복 연구는 행복(Happiness), (Well-Being), 주관적 안녕감(SWB; Subjective Well-Being), 심리적 안녕감(PWB; Psychological Well-Being) 등과 같이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여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크게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점으로 분류된다. 먼저, 행복은 안녕감(well-being)이 삶의 목적이 되는 주관적인 측면과 연령, 소득, 교육과 같은 객관적인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Diener, Lucas, Oishi, 2002). 또한 삶의 주관적 만족의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기도 하고(Andrew & Withey, 1976) 평안한 안녕 상태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인 특성(Diener, 2000)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Diener (1984)는 개인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행복이라 정의하고, 행복은 긍정/부정 정서, 삶의 만족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고려하여 긍정 정서 경험이 많고, 부정 정서 경험이 없으

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행복함을 느낀다는 정의적 측면과 나의 삶은 행복하다는 인지적 요소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였다(O'Donnell et al, 2014). 이렇게 행복은 정의적, 인지적,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살펴보아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관점이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연구 분야에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행복의 정의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차이를 보인다.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소득, 기대수명과 같은 객관적 측정과 살면서 누리는 선택의 자유, 기부 경험, 청렴도의 주관적 측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삶의 조건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 한 국가 또는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며, 후자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조사를 이용하여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정해식, 2016).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염유식, 2019)에서 행복지수는 주관적 행복, 물질적 가치, 보건과 안전, 교육, 관계적 가치, 행동가 생활양식과 같은 것을 조사하였다. 또한 행복 요인을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관계요인을 중심으로 탐색하기도 하였다. Alderfer의 생존-관계-성장 욕구이론(ERG)에 근거하여 16개 행복요인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공식행복지수를 개발하였고(김명소, 한영석, 2006), 자율성, 자기계발/목표추구, 긍정적 인생관, 여가활동, 대인관계, 가족관계, 종교, 외모, 건강, 경제력, 사회/정체/문화환경, 사회적 지위 및 인정으로 탐색하기도 하였다(유나영 등,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매년 행복을 국제비교연구하기 위해 0에서 10까지 수치로 환산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복을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감은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서민경, 조현경, 김재철, 2021; 염유식, 2019; 허유성, 최지영, 남창우, 2011; Uusitalo-Malmivaara, 2014). 중학교 3학년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의 행복이 높은 결과(김신영, 최운실, 2014)도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초·중학생보다 행복이 낮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행복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유형화한 연구에서는 성장혼합모형으로 부산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저수준 점진적 하락형’, ‘중수준 점진적 하락형’, ‘고수준 유지형’으로 모두 감소하는 행복을 3개의 잠재계층으로 유형화하였다(서민경 외, 2021). 또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행복의 조건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초·중학생은 화목한 가족을 행복의 조건으로 밝히는 반면, 고등학교 2학년부터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밝히고 있으며 점점 격차는 벌어지고 있었다(염유식, 2019). 이러한 결과로부터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행복 변화를 살펴볼 때 대입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이후의 대학생으로 변화이기 때문 이를 살펴볼 때 시간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리하자면, 행복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요인과 상황, 맥락과 같은 환경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Kozma, Stone, & Strones,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성장하는 학생들의 행복은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박현숙, 홍현희, 한운선 2018)을 의미하며,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행복의 수준과 상태를 측정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행복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

하며,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맥락적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 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행복은 개인, 가정, 학교 수준의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김종백, 김태은 2008; 김청송, 2009; 황환, 김영환, 2017; Ayyash-Abdo & Alamuddin, 2007; Ben-Zur 2003; Suldo, Thalji, & Ferron 2011). 먼저, 개인적 변인으로 심리 정서적 요인을 고려하였다(김명소, 임지영, 2003; 김홍순, 송민경, 김청송, 2012 ; 김청송, 2009; 이윤주, 2011; 서은국, 구재선; Diener, 1984). 구체적으로 긍정적 태도와 정서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김명소, 임지영, 2003; 서은국, 구재선; Diener, 1984). 즉, 긍정 정서를 높이고 부정정서를 줄이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자아효능감(김청송, 2009), 자아존중감(이윤주, 2011), 전문직업적 정체성(최상기, 2018)과 같은 자기에 대한 이해 관련 변인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가정 수준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주양육자의 긍정적 정서(서민경 외, 2021),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경험(구재선, 김의철, 2006; 이수연, 2010; Veenhoven, 1994; Argyle, 2002)이 행복을 구성하는 핵심 경험의 하나로 보았다. 가정 수준의 다른 요인들도 많이 고려되고 있으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모의 대화는 이들의 행복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 수준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소재지, 학생수, 사회성 및 감성교육의 실시(차성현, 김진미, 2014)를 보고하거나, 다양한 특별활동(자치활동, 적응활동, 봉사활동 등), 교사협력, 교사 열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 운영방안과 고등교육 서비스가 학생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여 교육 질 제고를 제안하기도 하였다(이한녕, 하정, 이희정, 2019).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자아탐색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양승준 등, 2016). 그런데 개인, 가정, 학교 환경 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특성(자아존재감, 자아탄력성)이 환경적 특성보다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경특성은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인특성이 청소년의 행복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기도 하였다(성은묘, 김균희, 2010).

이렇게 학생의 개인내적 변인과 가정, 학교 변인들이 학생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행복 발달궤적에 이러한 요인들이 시점별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성장하는 후기 청소년기 학생들이 자아를 성취하여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 1. 분석 대상

이 연구는 직업능력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II; KEEPⅡ)조사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자료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기간 동안 진로와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생활, 가정생활, 여가생활, 진로, 근로 경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조사의 모집단은 2016학년도에 50명 이상의 2학년이 있는 전국의 시·읍·면지역에 위치한 2,167개의 고등학교 학생의 성공 표본 수는 10,558명, 2차년도 9,157명, 3차년도 8,485, 4차년도 8,51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의 1차년도(2016년)자료부터 4차년도(2019년)까지 4개 년도 연속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행복 발달궤적의 잠재집단을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의 1차년도(2016년)자료부터 4차년도 자료(2019년)까지 행복 문항 4개 년도 자료에서 3개 년도 이상 지속적으로 응답한 자료만 분석 대상으로 종단 분석하였다. 행복 성장혼합모형분석을 위한 최종 분석 자료는 총 8,364명의 자료이고, 학생 성별 분포는 남학생 4,211명(40.3%), 여학생 4,116명(49.2%), 성별 문항 무응답 37명(4%)이었다.

행복 발달궤적분류에 개인, 부모, 학교 변인이 어떠한 예측효과를 보이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2학년(1차), 3학년(2차) 시기 개인, 부모, 학교변인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행복 발달궤적 분류에 대해 대학생생활만족도가 어떠한 예측효과를 보이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3차)와 2학년(4차)의 대학생생활만족도 설문조사에 응답한 자료는 3차 5,011명(남 2,209명(44.1%), 여 2,802명(55.9%)), 4차 4,573명(남 1,649명(36.1%), 여 2,924명(63.9%))으로 이 자료를 대상으로 예측효과를 분석하였다. 결측치는 변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최대완전정보우도(FIML)를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 2. 측정도구

##### 가. 종속변수 : 행복

행복 문항은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II; KEEPⅡ)설문조사에서 활용한 문항으로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은 세계행복보고서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삶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상태가 0이고 가장 행복한 상태가 10이라면 0에서 10까지의 수치로 환산할 때 당신은 몇 점 행복하십니까?”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 활용한 문항은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에 대해 1부터 10까지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0점)=1”로부터 “매우 행복하다(10점)=11”로 11점 리커트 측정하도록 하였다.

나. 예측변수 : 개인, 가정, 학교 요인

행복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변수 문항의 예시와 시점별 문항내적 일관성지수는 <표 1>과 같다.

개인요인에는 고민, 자아효능감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1차와 2차 시점별 문항내적일관성지수인 Cronbach  $\alpha$ 는 모두 .745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 문항은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8개(공부학교성적 문제, 진학진로문제, 가정의 경제적 형편, 부모님(또는 가족)과의 불화, 사귀는 사람(애인) 문제, 친구와의 관계, 나의 성격문제, 나의 외모신체 문제)항목에 따라 “고민이나 걱정이 없다 =1”에서 “고민이나 걱정이 있다. 보통이다 =2, 심각하다.=3, 매우 심각하다=4”와 같이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정요인으로 부모대화, 가정생활만족도 문항을 설정하였다. 부모대화 문항은 학교생활, 흥미와 적성, 미래직업, 학교 및 학과선택, 삶의 가치관에 대하여 부모님과 대화 빈도를 묻는 문항으로 “전혀 하지 않음=1”에서 “거의 매일=5”와 같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차, 2차의 문항내적일관성지수인 Cronbach  $\alpha$ 는 .870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가정생활만족도는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합니까”와 같이 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1> 주요변수의 문항 예시와 문항 내적 일관성 지수

주요변수	문항 수	예시문항	Cronbach $\alpha$			
			1차	2차	3차	4차
행복	1	귀하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전혀 행복하지 않다(0) = 1 <===> 매우 행복하다(10) = 11	-	-	-	-
개인	고민	8	.745	.781	-	-
	자아 효능감	6	.847	.857	-	-
가정	부모대화	5	.870	.920	-	-
	가정생활 만족도	1	-	-	-	-
학교	학교생활 만족도	1	-	-	-	-

주요변수		문항 수	예시문항	Cronbach $\alpha$			
				1차	2차	3차	4차
대학교 생활	학교 만족도	3	우리 학과(계열, 학부, 전공)는 학생들 간의 관계가 좋다. 나는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	-	-	.779	.757
	상담 만족도	2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의 고민에 대한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우리 학교에서는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	-	.812	.786
	교육 만족도	4	우리학교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의 다양하게 구성되어 선택의 폭이 넓다.	-	-	.753	.750
	비교과 만족도	2	학교에서 기초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의 해외연수(교환학생 포함) 지원이 만족스럽다.	-	-	.651	.655

학교요인은 1차와 2차의 고등학교 시기에는 학교생활만족도를 확인하였고, 3차와 4차에서는 대학생이 된 이후 대학생활만족도를 영역별로 확인하였다. 1, 2차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과 3, 4차의 대학생의 학교생활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KEEP설문조사에서는 상이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등학교 시점에서 학교생활만족도는 “현재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의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4차 시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대학생활만족도는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의 형태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로부터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사한 문항을 묶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주요인추출방법의 직각회전방법 베리맥스(Varimax)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으로는 주요인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직각회전방법의 베리맥스(Varimax)를 이용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 문항은 학교만족도, 상담만족도, 교육만족도, 비교과만족도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표 2> 참조). 4개 하위요인별로 3, 4차 시점 문항내적일관성지수인 Cronbach  $\alpha$ 는 학교만족도가 .779, .757, 상담만족도 .812, .786, 교육만족도 .753, .750, 비교과만족도 .651, .655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다.

〈표 2〉 학교생활 문항구성 및 요인부하량

요인 및 문항	요인 부하량
요인 1: 상담만족도 (고유값=5.418, 총분산=49.250, 누적분산=49.250)	
4) 진로정보/상담 :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762
5) 학생상담 : 학생의 고민에 대한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741
6) 학생의 의견반영: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721
요인 2: 학교만족도 (고유값=.948, 총분산=8.599, 누적분산=57.850)	
3) 학과자부심: 나는 우리 학과(계열,학부,전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809
2) 학교자부심: 나는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	.771
1) 학생들간의 관계: 우리 학과(계열,학부,전공)는 학생들 간의 관계가 좋다.	.612
요인 3: 교육만족도 (고유값=.777 총분산=7.067, 누적분산=64.916)	
9) 공정한 성적평가: 성적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763
7) 교수의 교과목 선택지도: 교과목선택에 대해 교수님이 적절하게 지도한다.	.585
8) 다양한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선택의 폭이 넓다.	.550
요인4: 비교과만족도 (고유값=.639, 총분산=5.805, 누적분산=70.721)	
10) 기초학습프로그램: 기초학습능력(영어수학 등)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58
11) 해외연수지원 : 해외연수(교환학생 포함)지원이 만족스럽다.	.711

### 3. 분석방법

분석을 위해 SPSS 25, Mplus 7.0을 활용하였다. 먼저,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변인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 등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4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복 변화 궤적을 분석하였다. 행복 발달적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수를 확인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GMM)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잠재계층분석을 중단 연구에 접목한 것이다. 잠재계층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준거지수 정보준거지수(AIC, BIC, SSA-BIC), 엔트로피(Entropy) 지수, 비교검증(LMR-LRT)지수를 활용하여 분류의 질, 프로파일의 실제적 유용성을 모두 고려하여 적합도와 집단 분류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정보준거지수(AIC, BIC, SSA-BIC)는 낮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간주하였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엔트로피(Entropy)값은 1에 가까울수록 보다 분류가 정확하다고 판단하였다. ALMR-BLRT 값은 k개 잠재계층과 k-1개 잠재계층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전의 모형과 비교하는 것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Geiser, 2013).

고등학교 2학년 4년 동안 변화하는 행복 성장혼합모형의 발달궤적을 분석하고, 이러한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따른 예측요인으로 개인, 가정, 학교요인의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확인하였다.

## IV. 분석 결과 및 해석

###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행복의 시간 흐름에 따른 발달궤적의 잠재집단 분류와 이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변수들에 대해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을 살펴보면, 행복은 고2, 고3, 대1, 대2 시점에서 모두 정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과 관련된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고2시점에서 고3시점까지 행복은 자아효능감과 가정요인(부모대화,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고민과는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 대1, 대2시점에서 학교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들도 행복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은 다른 모든 요인들 즉, 가정요인(부모대화, 가정생활만족도)학교요인(학교생활만족도, 대학생활영역별 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와 모든 변인과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모든 변인들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을 때 모두 절대값이 1이하로 왜도 3이하, 첨도 7이하의 범위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여 정상분포를 이루었다(Kline, 2016). 그리고 변수들 간 상관이 .80이상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도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 대학교 2학년까지 행복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 가정, 학교 요인 등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함으로써 분석의 전제조건을 만족하였다.

〈표 3〉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행복				1차시점(고2)					2차시점(고3)					3차시점(대1)				4차시점(대2)			
	고2	고3	대1	대2	1	2	3	4	5	1	2	3	4	5	6	7	8	9	6	7	8	9
행복도	고2	1																				
	고3	.435**	1																			
	대1	.376**	.382**	1																		
	대2	.361**	.357**	.503**	1																	
1차시점	고민	-.474**	-.289**	-.240**	-.217**	1																
	자아효능감	.463**	.214**	.233**	.270**	-.311**	1															
	부모대화	.257**	.125**	.144**	.141**	-.086**	.260**	1														
	가정생활만족	.510**	.295**	.300**	.260**	-.369**	.298**	.271**	1													
	학교생활만족	.455**	.280**	.243**	.223**	-.272**	.293**	.127**	.314**	1												
2차시점	고민	-.265**	-.410**	-.254**	-.212**	.374**	-.156**	-.039**	-.236**	-.156**	1											
	자아효능감	.211**	.264**	.223**	.215**	-.145**	.397**	.149**	.162**	.143**	-.177**	1										
	부모대화	.150**	.167**	.136**	.132**	-.047**	.146**	.401**	.191**	.090**	-0.016	.223**	1									
	가정생활만족	.244**	.336**	.249**	.224**	-.191**	.154**	.159**	.360**	.176**	-.267**	.225**	.308**	1								
	학교생활만족	.246**	.385**	.217**	.216**	-.133**	.162**	.072**	.202**	.331**	-.175**	.194**	.099**	.256**	1							
3차시점	학교만족	.168**	.170**	.305**	.247**	-.130**	.237**	.090**	.168**	.179**	-.119**	.250**	.086**	.158**	.184**	1						
	상담만족	.126**	.142**	.235**	.188**	-.093**	.186**	.067**	.120**	.138**	-.102**	.212**	.081**	.122**	.170**	.620**	1					
	교육만족	.122**	.166**	.259**	.214**	-.099**	.195**	.057**	.131**	.149**	-.126**	.216**	.053**	.141**	.166**	.657**	.712**	1				
	비교과만족	.094**	.110**	.193**	.153**	-.077**	.153**	.054**	.117**	.110**	-.068**	.152**	.044**	.121**	.146**	.468**	.522**	.568**	1			
4차시점	학교만족	.178**	.161**	.236**	.306**	-.103**	.200**	.058**	.167**	.165**	-.087**	.209**	.041**	.135**	.169**	.442**	.316**	.353**	.243**	1		
	상담만족	.088**	.118**	.156**	.228**	-.060**	.151**	.041**	.087**	.103**	-.060**	.159**	0.018	.092**	.123**	.274**	.362**	.335**	.258**	.591**	1	
	교육만족	.142**	.164**	.188**	.260**	-.100**	.159**	0.023	.116**	.134**	-.095**	.170**	0.012	.100**	.155**	.305**	.331**	.392**	.268**	.650**	.673**	1
	비교과만족	.089**	.100**	.157**	.194**	-.062**	.118**	0.025	.088**	.088**	-.033*	.138**	0.002	.071**	.121**	.201**	.246**	.263**	.376**	.480**	.502**	.563**
M	7.85	7.69	7.86	7.89	1.73	3.69	2.91	4.11	3.66	1.59	3.66	2.97	4.06	3.86	3.78	3.56	3.66	3.39	3.73	3.50	3.63	3.36
SD	1.94	2.06	1.76	1.80	0.43	0.66	0.91	0.88	0.87	0.43	0.66	1.02	0.83	0.77	0.67	0.71	0.65	0.76	0.65	0.70	0.65	0.76
왜도	-0.53	-0.68	-0.75	-0.82	0.59	-0.18	0.46	-0.84	-0.39	0.95	-0.21	0.40	-0.80	-0.63	-0.37	-0.32	-0.29	-0.08	-0.40	-0.28	-0.41	-0.22
첨도	0.18	0.33	1.09	1.27	0.31	0.31	-0.20	0.31	0.15	1.30	0.70	-0.59	0.76	0.81	0.63	0.59	0.55	0.03	0.60	0.56	0.80	0.24

\* $p < .05$ , \*\* $p < .01$

1=고민, 2=자아효능감, 3=부모대화, 4=가정생활만족, 5=학교생활만족, 6=학교만족, 7=상담만족, 8=교육만족, 9=비교과만족

## 2. 행복감의 변화궤적 성장혼합모형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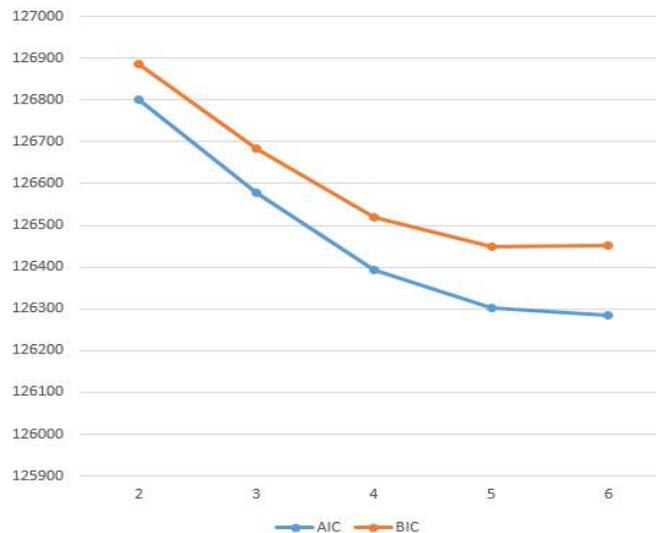
### 가. 잠재계층 수 결정

고등학교 2학년부터 4년 동안 행복의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탐색적으로 2개의 잠재집단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5개의 프로파일까지 분석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다.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모형 비교검증, 정보준거지수, 분류의 질의 순서를 따랐다.

**<표 4> 행복 모형 적합도와 집단 간 분류비율**

	AIC	BIC	SSA-BIC	LMRT	Entropy	집단 간 분류비율(%)					
						1	2	3	4	5	6
2	126102.497	126186.877	126148.744	671.590***	.850	93.76	6.24				
3	125896.089	126001.564	125953.897	204.848***	.770	10.00	6.67	83.33			
<b>4</b>	<b>125704.288</b>	<b>125830.859</b>	<b>125773.658</b>	<b>190.760***</b>	<b>.799</b>	<b>6.18</b>	<b>2.72</b>	<b>81.36</b>	<b>9.75</b>		
5	125650.137	125797.802	125731.068	58.011*	.776	5.75	3.46	82.99	6.92	.89	
6	125617.299	125786.059	125709.792	37.455*	.771	1.02	.57	6.23	5.94	80.97	77.63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그림 1] AIC, BIC 적합도 지수 그래프**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AIC, BIC, SSA-BIC 적합도 지수는 4개 계층까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며 5개 이후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ntropy 값은 3개까지 감소하다가 4개에서 다시 증가하였으나, 5개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LMRT 지수는 모든 계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p < .05$ )을 보였으나, 2개에서 4개의 계층에서는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5개 계층 이상부터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모두 종합하여 행복의 2, 3, 4개 잠재계층 분류 모형을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정보준거 적합도 지수, 분류된 사례수의 적절성, 해석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복 발달궤적의 잠재계층 수는 분류 사례수가 적절히 분포된 4개 계층 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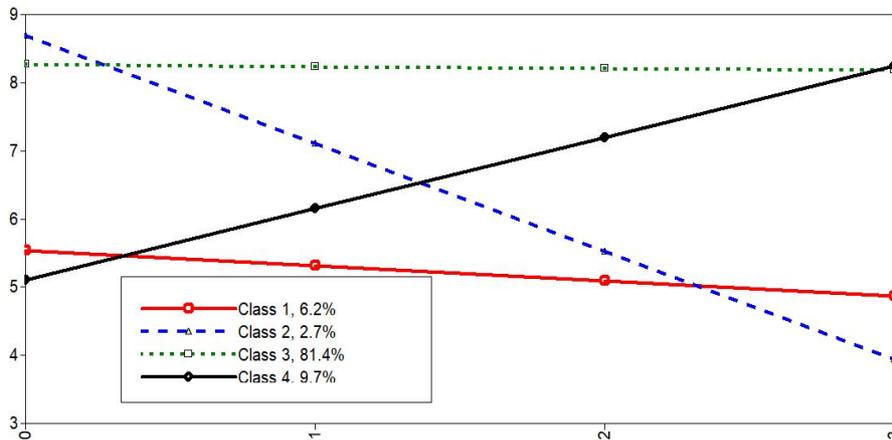
나. 행복 변화양상에 따른 집단 유형

분류된 고등학교 행복 4개 계층의 잠재계층별 고등학교 2학년부터 4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성과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초기치와 평균 선형변화율을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행복 변화양상에 따른 유형별 초기치와 변화율

모수 추정치	행복 저수준 저감집단 (class1, 6.2%)	행복 고수준 감소집단 (class 2, 2.7%)	행복 고수준 저감집단 (class 3, 81.4%)	행복 저수준 상승집단 (class 4, 9.7%)
평균 초기치	5.531(.19)***	8.695 (.305)***	8.266(..035)***	5.101(.118)***
평균 선형변화율	-.222(.094)*	-1.586(.132)***	-0.028(.012)*	1.048(.05)***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2] 행복 변화양상에 따른 집단별 발달궤적

<표 5>와 [그림 2]와 같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4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복 발달궤적의 잠재계층 특성에 따른 명칭을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재집단 유형은 학생 전체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다른 잠재집단 유형과 비교하여 초기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서서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집단의 평균 초기치가 5.531로 다른 집단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평균 선형변화율은  $-0.224$ 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소 감소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즉, 이 집단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어 ‘행복 저수준 저감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 잠재집단 유형은 전체의 약 2.7%로 분포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다른 잠재집단 유형과 비교하여 초기에 높은 수준의 행복을 보이고 있었으며, 다른 집단보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집단의 경우, 평균 초기값은 8.695로 나타났으며, 평균 선형변화율이  $-1.586$ 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이렇게 행복 초기값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 고수준 감소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잠재집단 유형은 전체의 약 81.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초기에 행복 수준이 높으며, 시간에 따라 매우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었다. 이 유형의 평균 초기값은 8.266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나, 평균 선형변화율이  $-0.028$ 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이 집단의 행복 수준의 초기값은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완만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 고수준 저감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잠재집단 유형은 전체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고, 초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시간에 따라 높아지고 있었다. 이 유형의 평균 초기값은 5.101이고, 평균 선형변화율은 1.048로 나타나 시간에 흐름에 따라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행복 수준의 평균 초기값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행복 고수준 상승집단’으로 명명하였다.

## 2. 행복의 변화양상에 미치는 예측효과 검증

행복 발달궤적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교 2학년 시기 개인요인(고민, 자아효능감), 가정요인(부모대화,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요인(학교생활만족도, 대학생활 영역별 만족도)의 예측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시점별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과 같이 계층 간의 비교를 위해 ‘행복 고수준 저감집단’을 참조집단(reference class)으로 설정하였다. 제시된 추정치는 준거집단에 비해 각 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의미한다.

〈표 6〉 행복 발달궤적 분류의 고등학교 생활 예측효과 검증

예측 변인	고수준 저감(준거집단)									
	저수준 저감 vs			고수준 감소 vs			저수준 상승 vs			
	B	se	Exp (B)	B	se	Exp (B)	B	se	Exp (B)	
1차 고2	고민	1.08	0.13	2.93***	0.12	0.20	1.13	1.40	0.11	4.07***
	자아효능감	-1.00	0.10	0.37***	0.10	0.15	1.10	-0.81	0.09	0.44***
	부모대화	-0.20	0.07	0.82***	-0.02	0.09	0.98	-0.28	0.06	0.76***
	가정생활만족	-0.76	0.06	0.47***	-0.09	0.10	0.91	-0.70	0.05	0.50***
	학교생활만족	-0.70	0.07	0.50***	-0.11	0.10	0.89	-0.75	0.06	0.47***
2차 고3	고민	1.49	0.11	4.43***	0.85	0.18	2.34	1.15	0.10	3.15***
	자아효능감	-0.68	0.09	0.51***	-0.20	0.14	0.82	-0.28	0.08	0.75***
	부모대화	-0.21	0.06	0.81***	0.01	0.08	1.01	-0.24	0.05	0.79***
	가정생활만족	-0.52	0.06	0.59***	-0.20	0.10	0.82*	-0.30	0.05	0.74***
	학교생활만족	-0.29	0.04	0.75***	-0.10	0.07	0.90	-0.18	0.03	0.84***

\* $p < .05$ ; \*\* $p < .01$ ; \*\*\* $p < .001$

행복의 발달궤적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시점 요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 고수준 저감집단’(준거집단)과 ‘저수준 감소집단’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고등학교 2학년(1차 년도), 3학년(2차 년도) 시점에서 자아효능감, 부모대화,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고수준 저감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고민이 많을수록(고2) ‘저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행복 고수준 감소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고3시점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고수준 저감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고민(고3)이 많을수록 ‘고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셋째, ‘행복 저수준 상승집단’과 비교하면, 고3 시점의 자아효능감, 부모대화,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고2, 고3)가 높을수록 ‘고수준 저감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반면, 고민이 많을수록(고2, 고3) ‘저수준 상승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행복 발달궤적 분류에 대한 대학생활 예측효과 검증

예측 변인	고수준 저감(준거집단)									
	저수준 저감 vs			고수준 감소 vs			저수준 상승 vs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3차 시점 (대1)	학교만족도	-0.84	0.14	0.43***	-0.15	0.22	0.86	-0.26	0.11	0.77*
	상담만족도	-0.13	0.14	0.87	0.06	0.22	1.06	-0.16	0.11	0.85
	교육만족도	-0.61	0.17	0.54***	-1.08	0.26	0.43***	0.15	0.13	1.16
	비교과만족도	0.29	0.12	1.34*	0.06	0.19	1.06	0.00	0.09	1.00
4차 시점 (대2)	학교만족도	-0.70	0.15	0.50***	-0.78	0.25	0.46***	-0.31	0.12	0.73*
	상담만족도	-0.02	0.14	0.98	-0.52	0.25	0.59*	0.33	0.11	1.40***
	교육만족도	-0.59	0.16	0.55***	-0.17	0.29	0.84	-0.26	0.13	0.77*
	비교과만족도	-0.02	0.12	0.98	0.17	0.21	1.19	0.00	0.09	1.00

\* $p < .05$ ; \*\* $p < .01$ ; \*\*\* $p < .001$

행복의 발달궤적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시점 대학생활 항목 별 예측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 고수준 저감집단’(준거집단)과 ‘저수준 감소 집단’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학교만족도가 높고, 교육과정과 같은 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고수준 저감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기초학습프로그램과 같은 비교과프로그램(대1)에 참여할수록 ‘저수준 감소’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행복 고수준 감소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2 시점에서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만족이 높고, 대2 시점에서 학교만족도와 상담만족도가 높을수록 ‘고수준 저감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행복 ‘고수준 감소집단’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1, 대2 시점에서 학교만족도가 높고, 다양한 교육과정 등 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고수준 저감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2 시점에서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저수준 상승’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정리하자면, 학교자부심과 같은 학교만족도와 학생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마련하는 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추이를 보이는 ‘행복 고수준 저감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였다. 그러나 대1 시점에 기초학습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저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1 시점에서 기초학습프로그램과 해외 연수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생상담만족도는 대2 시점에서 ‘저수준 상승’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고, ‘고수준 감소 집단’과 비교해서 ‘고수준 저감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결과는 행복이 낮은 학생들의 행복을 높이거나 행복을 낮추는 것을 저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예측요인임을 보여주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4년 동안 성장함에 따라 학생들의 행복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궤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분류하며 이러한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생활 요인들의 예측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개인, 가정과 학교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2학년의 행복 발달궤적을 분석한 결과, 행복 발달궤적의 잠재계층은 행복 저수준 저감집단, '행복 고수준 감소집단', '행복 고수준 저감집단' '행복 고수준 상승집단'으로 4개의 잠재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을 대상 선행연구에 '저수준 점진적 하락형', '중수준 점진적 하락형', '고수준 유지형'으로 모두 감소하는 행복을 3개의 잠재계층으로 유형화한 연구(서민경 외, 2021)와 행복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발달패턴에서 감소의 수준 차이와 상승 패턴도 나타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둘째, 자아효능감, 부모대화,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고2, 고3)이 높을수록 '고수준 저감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반면, 고민(고2)이 많을수록 '저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행복 발달궤적 잠재유형 분류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인(김청송, 2009)으로 학교생활스트레스(손선옥, 2019), 자아존중감(이윤주, 2011; 전해진, 유미숙, 2015), 자아존재감, 자아탄력성(성은모, 김균희, 2010)의 행복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이중 고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시점의 학업과 진로에 관한 고민이 행복도를 낮추는 중요한 원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덧붙여 환경 요인으로 부모대화,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부모대화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부모와 의사소통(서민경 외, 2021), 가족과 친밀한 관계(구재선, 김의철, 2006; 이수연, 2010; Veenhoven, 1994; Argyle, 2002)가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었던 결과와 유사하다. 고등학교 시기에 겪는 학생들의 고민과 진로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정에서 부모와 깊이 있는 대화시간을 갖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행복 발달패턴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활 영역은 학교, 교육, 상담영역에서 만족도가 긍정적인 행복 발달궤적에 속할 확률인 '행복 고수준 저감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요소 였다. 그러나 대1 시점에 기초학습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저수준 감소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1 시점에서 기초학습프로그램과 해외연수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담만족도는 '저수준 상승'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결과를 보인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서는 낮았던 행복이 대학생활의 상담을 통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생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고등교육서비스(이한녕, 하정, 이희정, 2019)가 행

복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한 결과이며, 나아가 세부적으로 차별적인 영향력까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대학생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교 1학년 시기 수학, 영어의 기초학습 프로그램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방안을 제고해보아야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과학과 자부심을 올리는 학교정책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심리상담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경쟁중심의 고등학교 환경에서 개인의 가치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고 있는 행복이 성장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행복의 지각패턴이 서로 다른 행복 발달궤적을 살펴보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행복 발달패턴이 추출되어 이들의 행복감 발달에 보다 깊이 있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발달패턴을 보이는 행복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별 개인, 가정, 학교 수준의 예측효과를 확인하여 행복한 삶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시사하는 바를 제공하였다.

## ❖ 참고문헌 ❖

- 구교준, 임재영, 최슬기(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21(2), 85-130
- 구재선, 김의철(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177-100
- 구재선, 서은국(2015).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 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pp. 63-83
- 권재기, 양명희(2014).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행복감 프로파일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20(3), 201-227
- 김명소, 임지영(2003)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과과의 관계 분석: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8:1),
- 김명소, 한영석(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종백, 김태은(2008). 학교행복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2(1), 259-279
- 김청송(2009).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4(3), 649-665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박선영(2012).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가정, 학교,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9), 149-188.
- 서은국, 구재선(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85-113
- 성은모, 김근희(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24(4), 177-202.
- 손선옥(2019).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 학교급 및 성별 차이, 스트레스연구 27(2), 158-165.
- 양승준, 이보연, 김희웅(2016). 토픽모델링 기반 행복과 불행 이슈 분석 및 행복 증진 방안 연구, 지식경영연구 17(2), 165-185
- 염유식(2019). 한국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오진주, 이현민(2021).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과 주관적 행복의 차이, 조사연구
- 유나영, 정여진, 김비아, 정영숙, 신현정(2015). 한국인의 행복 개념 탐색연구 : 한국 대학을 대상으로, 한국민족문화 55(56), 197-230
- 이강진, 임정기(2020).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행복감의 발달궤적에 관한 연구, 65, 75-106,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5, 75-106
- 이수연(2010). 대학생의 행복 척도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2), 107-122.
- 이윤주(2011). 행복해지기 위한 대학생의 노력, 아시아교육연구 12(2), 63-84.
- 이종한, 박은하(2010). 내-외적 자기개념, 행복조건, 사회비교와 자기존중감의 관계: 초,중,고,대학생 비교
- 이한녕, 하정, 이희정(2019).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나라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사전요인분석, 지식경영연구, 20(2), 137-153.
- 이한녕, 하정, 이희정(2019).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나라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사전요인 분석, 지식경영연구, 20(2), 137-153

- 전기숙(2016). 청소년의 행복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3(10), 411-429.
- 전혜진, 유미숙(2015).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및 미시체계 변인의 경로분석, *청소년학 연구* 22(6), 75-104
- 정해식(2016). 행복도 추이와 설명요인: UN 세계행복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issue & focus,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차성현, 김진미(2014). 중학생이 느끼는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관련성 탐색. *한국교육*, 41(4), 103-122.
- 최상기(2018). 전문직업적 정세성, 자기효능감이 음악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선, 손은령(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 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33-247
- 한혜림, 이지민(2018).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잠재성장모형 연구 : Alderfer의 ERG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1), 103-117
- 허유성, 최지영, 남창우(2011). 행복한 저성취 학생관련 교실수준 변인에 대한 탐색. *아동교육*, 20(4), 109-126.
- 황환, 김영환(2017). 국내 청소년 행복의 영향요인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청소년학연구* 24(7), 1-28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 Plenum.
- Argyle, M. (2002). *The Psychology of Happiness* (2nd ed). 김동기, 김은미 공역 2005. 행복심리학, 서울: 학지사.
- Ayyash-Abdo, H, & Alamuddin, R. (2007).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College Youth in Leban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7(3), 265-84
- Ben-Zur, H. (2003). Happy adolescents: The link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internal resources, and parental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2), 67 - 79.  
<https://doi.org/10.1023/A:1021864432505>
- Diener, E., Lucas, R. E., & Oishi, S. (2002). Subjective well-being :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63-73). New York: Oxford University
- O'Donnell S. L., Chang, K. B., & Miller, K. S. (2013). Relation among autonomy, attribution style, and happiness in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47(1), 228-235.
- Ryan, R. M., and Deci, E. L(2000). Self- 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3).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uldo, S., Thalji, A., & Ferron, J. (2011). Longitudinal academic outcomes predicted by early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psychopathology, and mental health status yielded from a dual factor model.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6*(1), 17-30. <https://doi.org/10.1080/17439760.2010.536774>
- The World Happiness Report 2021. <https://worldhappiness.report/>
- Uusitalo-Malmivaara, L. (2014). Happiness decreases during early adolescence: A study on 12-and 15-year-old Finnish students. *Psychology, 5*(6), 541-555.
- Veenhoven, R. (1994). Is Happiness a trait?: Test of the theory that a better society does not make people any happier, *Social Indicators Research 32*(2), pp. 101-160.

## ❖ Abstract ❖

###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Using the Growth-mixed Model and Verification of Predictive Effect by Point in Time

Chang, Heesun(Hyejeon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nge trajectory of happiness over time to derive the latent class, and to examine the predictive factors of individuals, families, and schools influencing this by time point. For this purpose, using data from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urvey (KEEP), the correlation and growth mixed model (GMM) was performed,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for each time point.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trajectory of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was divided into four latent groups: 'Happiness low level low decrease group', 'Happiness high level decrease group', 'Happiness high level low decrease group', and 'Happiness low level increase group'. Second,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the effect of predictive factors, the higher the self-efficacy, parental dialogue, home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2nd and 3rd high school),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Happiness high level low decrease group', whereas the higher the worry level (2nd year), the more showed negative predictive effect. Third, in the field of college life, school satisfaction increased the probability that they belonged to a positive development pattern of the change trajectory of happiness, but the extracurricular programs had a negative effect. In particular, satisfaction with counseling was a factor belonging to the developmental pattern that increased the happiness of low-level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suggestions for preparing measures to increase the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and predictive factors of their happiness development trajectory as they grow up, and examining the longitudinal effects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factors at each point in time. do.

**Key words:** Keep, The Change Trajectory of Happiness, High School Student,  
Predictive Effect